

■李대통령 취임식 참석 '전봇대 규제' 제기 유인숙씨

“호남 애정 갖고 균형발전 꾀야”



대불산단 전봇대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유인숙씨가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년 전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분이니, 대통령 선거 때 국민에게 한 약속도 꼭 지켜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25일 열리는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대표 70명 중 한사람으로 초청된 대불산단 소재 (주)유일 유인숙(여·49)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큰 기대를 표시했다.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과 나란히 단상에 앉게 된 유 대표는 “지난 2006년 대불산단 경영인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에게 ‘전봇대 규제’를 처음 건의했던 인물이다.”

유 대표는 “중소업체 기업인과 2년 전에 했던 약속도 기억한 분만큼 ‘경제 살리기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은 당연히 지켜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한반도 남북 끝에 붙어있는 대불산단에 관심을 가져준 것도 고마운데, 기업규제 해결의 상징성을 부여해 나를 취임식에 초청하는데 대해 감사한다”며 “현장을 중시하는

국가경영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불산단에서 선박용 블럭을 제작하는 유 대표는 “대불산단의 전봇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인 출신의 대통령의 만큼 산업 현장의 애로점을 끝까지 해소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또 호남 소외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놓았다. 유 대표는 “최근 대통령 인수위 관계자가 대불산단을 방문했는데,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며 호남 기업인의 애로점과 호남 민심 등을 묻고 갔다”며 “인수위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호남 소외문제 현장의 목소리로 인식하고, 호남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각종 국가정책을 균형있게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2년전의 약속 기억한 만큼 경제 살리기 약속 지켜지길”

방화 추정 산불 잇따라

완도·여수 등 임야 4ha 불타

로스쿨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

전남대는 당분간 안 올리기로

주말과 휴일 강풍 특보가 내려진 완도와 여수 등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임야 4ha가 불에 탔다. 완도에서는 당시 초속 16~24m의 강한 바람이 불어 14시간이 지난 뒤에야 완전히 산불이 진화됐다.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께 완도군 약산면 천동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잡목과 소나무 등 임야 3.4ha를 태운 뒤 24일 오전 7시에 완전히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헬기와 소방차, 산불 진화차량 등의 장비와 소방관과 의무소방대원, 군청 공무원 등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화재 발생 8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바람이 거세 잔불 정리에 애를 먹었다. 야간진화에 어려움을 겪던 당국은

24일 해가 뜨자 소방헬기를 다시 투입해 이날 오전에야 뒷불 정리에 마무리를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야산 앞과 뒤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두 건의 산불이 연이어 난 점에 비춰볼 때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24일 오후 1시10분께 강진군 군동면 용서리 한 야산에서 불이나 잡목 등 임야 0.5ha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묘지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지난 23일 오후 10시55분께 여주시 화양면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0.6ha를 태우고 3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인상 검토는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으나 입학 정원이 당초 신청했던 정원보다 훨씬 줄어들면서 재정적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원 150명을 신청한 뒤 120명을 배정받은 전남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법대학장들은 최근 교육부에서 열린 ‘로스쿨 법대학장 회의’를 통해 등록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으며, 교육부는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사항이나 사회적통념 수준 내에서 결정

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대학들이 당초 책정한 연간 로스쿨 등록금은 전남대 1천만원 이내를 비롯해 서강대 1천200만원(입학 등록금 100만원 제외), 서울대는 1천350만원 이내, 중앙대는 1천400만원, 건국대·경희대·한국외대는 1천600만원, 연세대는 1천700만원, 고려대와 한양대는 1천800만원 등이다. 전남대 박휴상 법대학장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국립대이고 신청했던 정원보다 30명 정도 적게 배정받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등록금 인상) 논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희망으로 훨~훨 날아라

울화로 5회째를 맞는 첨단가족 연 날리기대회가 24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쌍암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형형색색의 연을 창공에 날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첨단가족 연 날리기대회가 24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쌍암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형형색색의 연을 창공에 날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부동산 매각 9억 착복 학교 재단이사장 적발

광주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재단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친·인척과 짜고 거액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광주 S학원 재단이사장 박모(76)씨와 박씨의 조카인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50)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0년 12월부터 2002년 5월까지 1년6개월간 재단소유 부동산인 신안군 압해도 분배리 땅 58필지 47만5천257㎡를 3.3㎡당 최고 3만원에 매각하고도 관할 광주시 교육청에

1만5천~2만원에 처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한 혐의다. 이들은 전체 매매수익금 49억원의 절반 가량만 신고한 뒤 차액 26억7천9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9억여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금융권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제틀맨비뇨기과 전문 병원.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크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원장 (062)233-5119

나원침 (7441) 김중두



다중의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암관영. 서울본사: 02) 3445-0943, 광주광역시: 061) 337-0571

돌부리에 걸려 음주 도주 '덜미'

○음주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 이 단속 중이던 의경의 눈을 찌르고 도망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광주북부경찰은 24일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폭력을 휘두른 정모(30·북구 용봉동)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3일 밤 11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광주북부경찰 교통과 소속 오모(21) 상경에게 적발되자 차에서 내려 오 상경의 눈을 찌르고 네 차례 폭행한 뒤 교통 신호등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음주측정결과 면허 정지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063%가 나왔는데, 경찰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들롱날까 봐 두려웠다”고 진술.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기출분야 분석서파 - 한빛이 응원합니다. 7.9 공무원 합격압도적 위. 합격 天下統一. 한빛공무원학원